

제10회 원주인권영화제

The 10th Wonju Human Rights Film Festival

'나와 다른 사람들 - 다름과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 주최, 주관 : 원주시민연대
-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지대학교,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부, 공무원노조원주지부,
전교조원주지부, 다큐멘터리동호회 '나무'
- 협찬 : 근대기획
- 일시, 장소 : 2005.12.10~14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제10회 원주인권영화제

The 10th Wonju Human Rights Film Festival

‘나와 다른 사람들 - 다름과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2005. 12. 10(토) - 14(수)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시청각실

주최·주관 : 원주시민연대

후 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지대학교, 참교육학부모회원주지부
공무원노조원주지부, 전교조 원주지회, 다큐멘터리동호회 ‘나무’

협 찬 : 근대기획

문 의 : 033-766-1364 033-766-1366

PROGRAM

12월 10일(토)

- | | |
|---------------|------------------|
| 17:00 - 18:50 | 안녕사요나라(110분) |
| 19:00 - 19:47 |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47분) |
| 19:50 - 21:10 | 안티폭스(80분) |

12월 11일(일)

- | | |
|---------------|-------------------------|
| 14:00 - 15:23 | 학교이야기(83분) |
| 15:30 - 16:30 | 원주지역 고등학생 영상동아리 작품(60분) |
| 16:40 - 16:57 | 금붕어(17분) |
| 17:00 - 17:20 | 흡연모녀(21분) |
| 17:25 - 19:05 | 진실의 문(105분) |
| 19:10 - 20:00 | 엄마(50분) |

12월 12일(월)

- | | |
|---------------|--------------------|
| 19:00 - 20:10 | 슬로브하트의 딸들(72분) |
| 20:15 - 20:40 | 여성과 돈에 관한 이야기(25분) |
| 20:45 - 21:10 | 우리사이(23분) |

12월 13일(화)

- | | |
|---------------|------------------|
| 19:00 - 20:00 | 엄마를 찾아서(60분) |
| 20:10 - 20:57 |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47분) |

12월 14일(수)

19:00 - 20:20 별별이야기(72분)

원주인권영화제 소개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투쟁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수단에 의해 국경을 넘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분명히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의견과 표현에 대한 불관용과 억압이 판을 쳐왔다.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억압됐을 뿐 아니라 예술인의 상상력마저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올라야 했다. 특히 영상물에 대해서는 검열이 의무로서 강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인권영화제는 이 시대착오적인 검열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함으로써 하나의 예외를 창조했다. 그 결과 인권영화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인권영화제의 승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인권영화제의 변함없는 뜻대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본질적인 권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인권영화제의 입장이며,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가 '주장'되고 '전달'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언제나 현재의 과제이다.

인권교육의 실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인권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교육을 위한 하나의 시도으로써 '영화'를 발견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인류 모두의 과제를 알려주는 주제 속으로 인권영화제는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 초대와 응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해 알고 느끼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기를 인권영화제는 기대한다.

인간을 위한 대안적 영상의 발굴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꾸리는 영화제이다.

인권영화제의 모든 작품은 무료로 상영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후원의 힘이다. 감미롭고 요란하나 상업주의의 편식에 치우친 한국의 영상문화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되고자 하는 인권영화제는 다양한 장르와 정신을 지닌 영화를 한국의 대중에게 소개하려 노력한다.

세계 곳곳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 '인간을 위한 영상'을 발굴하는 것이 인권영화제의 사명이며 많은 대중과 영화인의 호응이 새로운 측면의 영상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안녕사요나라 한국·일본/2005/김태일·카토 쿠미코/110분/다큐

Synopsis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하소송을 하고 있는 한국인 유족 이희자씨. 일제강점하 한국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활동하는 일본인 후루카와씨.

두 사람은 1995년, 대지진으로 수천명이 죽었던 일본 고베에서 처음 만났다. 이희자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후루카와씨가 그녀의 표정을 이해한 것은 몇 년이 지난 뒤였다. 2001년부터 두 사람은 야스쿠니신사 문제로 함께 싸워왔고, 올해 3월 한국과 대만, 오키나와, 일본의 유족들이 공동으로 집회를 열었을 때도 같이 있었다.

지난 6월 두 사람은 이희자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중국 광서성을 찾았다. 60년만에 아버지에게 제사를 올리며 통곡하던 이희자씨. 비가 내렸고, 후루카와씨는 그녀 옆에서 그저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었다.

작품소개

2002년 공동월드컵 개최와 한류 열풍으로 고조되던 한일 간의 우호적 분위기는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 중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 뿐 아니라 많은 성인들도 야스쿠니신사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안녕, 사요나라>는 야스쿠니신사의 실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 운동을 따라가며 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야스쿠니신사뿐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 교과서를 넘어 현재 시점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태일」

공동작업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덕분에 일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서 길을 보았다.

「카토 쿠미코」

이 테마가 아시아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양국 스텝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다.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Die or Leave-The Migrant Worker's Interview Project)

한국/2004/주현숙, 조대회, 박대우, 홍윤덕, 허경, 이원재, 이윤이, 양승렬, 이영욱/47분/다큐

Synopsis

이방인, 그것도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의 유색 외국인

비정규직, 그것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피한다는 3D업종의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신분.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위치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차별,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등 수년동안 한국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동료들과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차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진솔하게 듣고자 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상처에 대한 치유과정인 동시에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주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이주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들, 이주한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듣는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소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거울이다.

이주노동자의 깊은 시름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는 증거이며, 타자를 보는 시선과 그 시선의 냉혹함은 이주노동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 것이고 그만큼 한국 사회는 더욱 병들어갈 것이다.

'이주'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이주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언어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명동성당에 철저히 고립된 그들의 시선으로 명동성당 들머리라는 위치에서 한국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그들의 말을 모아서 우리를 돌아보는 작업이다.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는 상처 받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할 것이다.

학교이야기(What's going in schools?) 한국/2004/전경진/83분/다큐**Filmography**

2002 「장애도 멸시도 없는 세상에서」

2003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선생님이 계신곳이 교단입니다」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초청

Synopsis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사립학교 문제.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사학과 정부의 의도된 무관심에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은 한낱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용화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2년여의 긴 투쟁을 통해 사립학교의 현실을 바라본다.

작품소개

2003년1월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은 학생의 부당퇴학 철회를 위한 투쟁 선포식이 있는 날이다. 진용용 선생님과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는 많은 수의 학교비판의 글들이 쓰여 있다. 대부분의 글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쓴 것이다. 그 누구도 그곳의 글을 쓴 것 때문에 퇴학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허성혜 학생도 그랬다. 퇴학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학교가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실제로 그랬다. 학교는 불법적인 찬조금, 학생등록금 이월, 무리한 물자절약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허성혜 학생 퇴학사건은 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발점이 되었고 2년여의 긴 투쟁의 시작이었다. 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나의 고교시절을 회상해 본다. 그리 유쾌한 시절만은 아닌 것 같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곳만은 아닌 모양이다.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이 나서고 학교 측과의 갈등은 커져만 간다.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진용용 선생님에 대한 파면이 이뤄지고 이번엔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시위를 시작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공립학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상황이 달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주체가 재단이기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사립재단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

하고 있다. 이 영화가 그 노력에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

금붕어(Goldfish) 한국/2004/박신우/17분/다큐

Filmography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

2003 「애니무스」 대한민국디자인대전 영상부문, 제5회 국제청소년 영화제 상영

2004 「금붕어」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선재펀드 수상

Synopsis

초등학생 신이. 엄마는 직장 때문에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빠와는 이혼문제로 별거중이다.

달력에 가위표를 쳐가며 생일을 기다리는 신이, 하지만 엄마는 신이에게 무관심하다. 신이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 금붕어와 항상 이야기를 나눈다. 신이의 생일 날, 금붕어가 신이에게 말을 걸어 온다.

작품소개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순간 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들의 무관심에 희생되는 아이를 환타지를 통해서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런 무책임한 부부들이 단 한번이라도 아이를 생각했으면 하는 맘이다.

흡연모녀 한국/2004/유은정/21분/다큐

Filmography

1996 「무한증 Anidrosis」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단편영화제, 국제여성영화제 상영

2001 「튜브」

2004 「흡연모녀」 연출

2005 「흡연모녀」 International Film and Television Festival Cinema Tout Ecran

최우수 단편영화상 수상

Synopsis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몰래 담배를 피우는 7살 영희와 마음 속 상실감을 달래려 숨

어서 담배를 태우는 37살의 영희 엄마. 영희와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는 아빠를 잡다가

영망으로 매 맞는다. 녀 나간 상처투성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담배를 내미는 영희.
나란히 앉아 마음의 상처를 담배 연기와 함께 내뿜는 모녀, 대신 그 자리에 희망을 품는다

진실의 문(The Gate of Truth) 한국/2004/김희철/105분/다큐

Filmography

- 1995 육군사관학교를 중퇴
- 2001 「나의아버지」
- 2004 「진실의 문」.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Synopsis

6년 전인 1998년 2월 판문점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한 장교의 죽음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살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권력의 인권 유린과 이에 동조하는 비양심적 지식인들의 집단주의, 그리고 사건의 본질보다는 선정적 보도에 치중하는 주류 언론들, 모순된 판결로 국방부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법부, 그리고 사건 전 과정의 진실을 알면서도 진상을 은폐하고 침묵하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고발한다.

작품소개

지난 1998년 2월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제2소대장 김훈 중위의 의문사를 둘러싼 공방의 진실을 추적한 작품. 당시 군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활동조사단을 만들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자살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영화는 미군이 촬영한 사건 당일 사고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한번 사건 경과를 나열하면서 군 당국의 허술하고 미흡한 수사과정을 고발한다. 또한 의문사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 유족 측 변호사, 당시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했던 군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훈 중위 사건의 '의문'을 열거 하면서, 자살이나 타살이냐의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는 군 당국과 법의학자들, 미군 당국, 그리고 선정적인 보도만을 일삼았던 언론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다. 진실을 규명해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동경비구역의 군기 문란과 폭력, 그 억압적인 위계적 구조 속에서 엄연히 자행되고 있는 군대 내 인권유린의 현실을 들춰낸다.

엄마(Morther) 한국/2004/류미례/50분/다큐

Filmography

- 2000 「나는 행복하다」 제1회장애인영화제 가작 수상
- 2001 「친구-나는 행복하다 II」
- 2004 엄마

Synopsis

6남매를 키웠던 엄마

현재 딸을 갖은 나

그 안에 카메라를 통해 본 내 미래의 모습... 엄마

두 번이나 '장한 어머니상'을 받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칭송 받아왔던 엄마는 우리 6남매가 모두 출가하자 그토록 원하던 독립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금세 외로워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엄마는 매일 아저씨 사무실에 출근해서 청소나 밥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하지만 아저씨는 당신 자식들에게 엄마의 존재가 알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우리 6남매는 엄마가 상처입지 않을까 걱정한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기만 한 어머니상과는 다른 엄마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와 가족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형제를 통해 여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기로 한다.

작품소개

<엄마...>는 엄마의 사랑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지만, 단순히 엄마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또 다른 삶을 통해 그 동안 살아왔던 엄마로, 자식의 부모의 엄마로,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죽어도 좋아>를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영화가 세상이 바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상을 전복했기 때문이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 씹지주머니에서 눈깔사탕을 꺼내주는 할머니.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되었다. 그러나 예순 다섯 엄마는 아침마다 공들여 화장을 하고, 아저씨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한다. 특별하지 않은 엄마와 아저씨의 모습, 그리고 때로 반발하며 때론 이해하려는 우리 6남매의 모습들을 통해 사랑을 시작하는 세상의 모든 노년들에게 응원가를 불러 드리고 고민하는 자식들을 향한 나직한 말 걸기가 되기를 바란다.

슬로브 핫의 딸들 한국/2005/문정현/72분/다큐

Filmography

2003 「아프리카의 미혼모」

2003 「고향에 가고 싶다」

Synopsis

기독교가 복음을 들고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20여년, 그동안 한국의 개신교는 12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남한 최고의 종교 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차별의 그늘이 짙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영화는 가부장적인 국내 기독교의 권위를 기반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서울 YMCA의 기만과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 회원들의 투쟁을 다룬다. 그리하여 교회와 교회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차별의 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작품소개

경쟁과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듯 한국의 개신교는 120여년의 시간 동안 12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자타가 인정하는 남한 최고의 종교 집단이 되었다. 하지만 개혁과 보수의 대결이라는 현 사회의 흐름과 같이 대형화된 교회들 역시 내·외부로 많은 모순과 보,혁 간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교회 내부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초창기 한국사회에 들어온 개신교 그 자체의 모순에서 시작한다. 이 영화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합된 개신교의 역사를 또한 자본의 논리 속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해온 교회의 모습을 여성들의 눈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드러난 개신교회의 가부장적인 모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차별적 악행을 분석, 평가하고, 이러한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기독교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서 차별의 문화가 생겨나고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성역화 하면서 그동안 감추고 말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반성을 하고 그 토양 위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여성과 돈에 관한 이야기(Economic Women) 한국/2005/서울여성의전화/25분/다큐

Filmography

- 1983 서울여성의 전화 창립
- 활동 : 폭력여성 피난처 '쉼터'운영
 -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운동
 -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

Synopsis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생산의 주체라기보다는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경제적 기여도를 적절히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여성도 생산의 주체이며, 경제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획득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제작 되었다.

5개의 섹션별로 나누어져 '여자와 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나와 돈의 관계 등 포괄적인 내용에서부터 가족 내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는지, 재산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담아내고 있다. 순간 순간마다 여성 자신들의 솔직한 느낌들을 엿 볼 수 있다.

우리사이(Between us) 한국/2004/한현주/23분/극영화

Filmography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멀티미디어 센터 도토리 사랑방 대표
- 2001 「시어머니와 모시이야기」 연출
- 2003 「이것이 어린이 도서관이다」 연출
- 2004 「어린이의 미디어 권리를 위하여」 연출

Synopsis

어린이들이 제작 전반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표출한 작품으로, 가족 안에서

어린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엄마와 어린이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생생하게 담고 있다.

작품소개

카메라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엄마에게 구박받는 아이들이 엄마들을 향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잔소리 폭력'에 대한 불만을 알게 모르게 표출한다.

아이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엄마의 잔소리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 촬영, 연기까지 도맡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작품 후반부는 전반부 드라마에 대한 메이킹 필름으로, 자신의 고민을 직접 영상에 담아내는 어린이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기표현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 드라마를 연상시키지만, 가족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개별 인격체로서 어린이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엄마를 찾아서 한국/2005/정호현/60분/다큐

Filmography

- 1999 「평범하지 않은 평범」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야마가타 국제영화제 상영
- 2000 「딸들의 명절」 서울여성영화제 초청작
- 2003 「정씨집안 딸들」 킬 아시안국제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아시아아메리칸영화제 초청
- 2005 「엄마를 찾아서」 서울여성영화제 다큐멘터리 옥랑상 수상

Synopsis

엄마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다. 청소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교회에 간다.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노트에 정리한다. 또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늦은 저녁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복습하고 잠자리 들기 전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 엄마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작품소개

이 다큐멘터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 죽은 후 집안 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며느리'와 '고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가족이라는 관계망(권력망)에서 '견디기 힘든 그러나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이상한' 엄마에 대한 외동딸의 애정어린 관찰이다.

한국의 대가족 제도하에서 '만며느리' 정치구조를 성공적으로 읽어내고 감당해낸 고모와, 만며

느리 삶에 실패하고 자신의 삶을 '지워버림', '사후 천국보상'으로 뛰어넘으려는 엄마의 단절된 삶을 조망한다: 조상을 잘 모시면 만사형통 할 것이라 믿는 고모는 지금도 살아계신 시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처럼 모신다. 스스로를 내무부장관이라 부르며 며느리, 아내, 어머니라는 위치에 최선을 다한다. 당신이 시댁에서 최선을 다 하는 만큼, 올케(나의 엄마)가 시부모, 시댁식구들에게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빠의 죽음과 동시에 엄마는 시댁 봉제사를 거부했고, 고모를 비롯한 아빠의 가족들은 엄마의 뿌리의식 없는 행위에 기가차고 어이없어한다. 고모는 마음의 근원인 친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좌절감에 끊임없이 엄마에게 당신은 정씨집안 만며느리임을 일깨워주려 한다. 반면, 험한 시집살이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으로 엄마는 아들 둘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다. 다시 시댁으로 들어올수 밖에 없었던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일 하고, 집안일을 해왔지만 고모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댁식구들로부터 '눈에 안찬다'라는 평가만을 들어왔다. 늘 실패한 기분뿐 이었다고 고백하는 엄마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만 가득 차기에 고통이 없고 진리가 있는 '저 세상' 즉 천국에서의 삶을 꿈꾼다.

별별이야기(If You Were Me) 한국/2005/국가인권위원회/72분/애니메이션

Synopsis

장애인의 현실을 다룬 「낮잠·Day Dream」 (유진희·2D드로잉애니메이션)

바로와 아빠가 한 여름날 낮잠을 자고 있다. 평화롭고 달콤한 잠속에서 바로는 아빠와 물장구를 치고 있다. 바로의 손장난을 따라하던 한 아이가 바로의 몽툰한 손을 보고 놀라 소리친다. 바로는 유치원에 가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한다. 마침내 바로를 손짓하는 유치원을 찾지만 오르기엔 너무 높은 곳이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야기 「동물농장·Animal Farm」 (권오성·클레이, 페펫)

양들이 사는 농장에 염소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양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염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느 날 염소는 양들이 흘려놓은 털을 몰래 모아 뜨개질을 시작한다. 코피가 떨어지는 노력 끝에 양털 옷은 완성되고 양옷을 입은 염소는 마침내 양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고정된 남녀성역할 지적 「그 여자네 집·At Her Home」 (5인프로젝트·2D드로잉)

언제나처럼 종숙은 남편과 자신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친정어머니가 팔을 다쳐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종숙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 출근을 포기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또다시 빈둥거리기만 할 뿐. 참다 못한 종숙은 청소기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데...

외모차별을 다룬 「육다골대녀·The Flesh&Bone」 (이애림·디지털컷아웃 애니메이션)

큰 머리, 큰 뼈, 많은 살을 가진 막내의 외모는 고조에서 증조로 그리고 조부모에서 부모로 내려져 온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막내는 그리 행복하지 않다. 외모로 평가되는 사회는 막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다른 무기를 강요하고, 막내의 울화통은 터져버리고 만다.

이주노동자를 다룬 「자전거 여행·Bicycle Trip」 (이성강·셀애니메이션, 컴퓨터드로잉)

비오는 거리, 어디론가 달릴 준비를 하는 자전거. 그러나 그 위엔 아무도 없다. 자전거는 동네 입구를 돌아 초록 대문을 밀고 들어선다. 자전거는 집 안을 둘러본 후 다시 어느 공장으로 향한다. 천천히 바퀴를 움직일 때마다 자전거의 기억들이 펼쳐진다.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장소,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들...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를 꼬집은 「사람이 되어라·Be Human Being」 (박재동·셀애니메이션)

공부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사는 원철이와 친구들은 '고털라'의 모습이다. 어느 날 원철이는 숲에서 하늘소, 사슴벌레 등을 만나게 되고 곤충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 뒤 사람의 얼굴로 학교에 나타난 원철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란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대학에 가야만 사람이 된다면 옛날로 돌아가라고 한다.

작품소개

인권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유니버스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인권(차별)을 주제로 애니메이션 감독 여섯 명이 참여하였다. 이 영화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식을 지적하고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작되었다.

안티폭스(Outfoxed: Rupert Murdoch) 미국/2004/로버트 그린월드/80분/다큐

Synopsis

전세계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폭스 채널의 우익 편향과 정보 왜곡 현실을 분석적으로 폭로한 다큐멘터리. 개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주창하는 폭스가 실제로 어떻게 공화당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부시 정권을 옹호하고 극우 편향적인 시각을 조장하면서 대중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지 보여준다.

원주인권영화제 역사

제1회 원주인권영화제 -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 일 시 : 1996년 12월
- 장 소 : 가톨릭센터
- 주 최 : 원주민주청년회, 민족회의원주시지부 등 인권영화제추진위
- 후 원 : 상지대학교, 인권운동사랑방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화를 대중 상영한 것은 국내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최초이며 유일한 것이었다. 인권영화제의 이러한 정신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상영장 대여 불가 압력 등 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시민의 큰 호응 덕분에 제1회 인권 영화제는 큰 어려움 없이 축제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다.

제2회 원주인권영화제 -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

- 일 시 : 1997년 12월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 주 최 : 원주민주청년회
- 후 원 : 상지대학교, 한겨레21

당국의 탄압으로 어렵게 개최되었다. 전국 12개 지역도시에서 개최했다. 70여 인권사회단체와 6백 여명의 개별 시민의 후원을 통해 모두 24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 제2회 인권영화제는 그 개최 자체가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생생하고 치열했다. 심의없이 영화를 상영하는 인권영화제에 대해 당국은 초강수의 탄압으로 영화제를 무산시키려고 애를 썼다.

제3회 원주인권영화제 -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 일 시 : 1998. 12. 9(수) - 12일(토)
- 장 소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강의실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기독교병원노동조합, 상지대학교노동조합
원주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 원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형성지회,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원주지부

제4회 원주인권영화제

- 일 시 : 1999. 12. 10(금) - 11일(토)
- 장 소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101호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원주기독교교회협의회, 원주기독교병원노동조합, 원주민주청년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원주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형성지회
천주교원주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
- 상영작 : 무명천할머니(한국), 소리(한국), 장애인 김진옥씨의 결혼이야기(한국)
민중에게 권력을(미국), 국가의살인-사형제도에 대한 고찰(미국)
잃어버린 지평선(인도), 서코로노브레-삶은 어딘가에(브라질), 이란식 이혼(영국)
독방의 활력(호주), 이골리(영국), 콜롬비아 치욕의 전쟁(네덜란드)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프랑스)

제5회 원주인권영화제

- 일 시 : 2000. 12. 7(목) - 9(토)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원주기독교병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

천주교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원주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 상지대학교

- 상영작 :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한국), 평화의 시대(한국), 인간의 시간(한국)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스위스), 제9법안 찬반투표(미국)
대지의 소금(미국), 어린이 권리를 위한 만화시리즈(유니세프),

제6회 원주인권영화제

- 일 시 : 2001. 12. 12(수) - 14(금)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형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 상지대학교
천주교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원주지부, 원주민주청년회
- 상영작 : 입국금지(한국), 옥천전투(한국), 황제의 새옷(캐나다), 버림받은 사람들(미국)
행진(프랑스), 판단(유고)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인권영화제가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여 오는 12일부터 상지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원주시민센터를 비롯 6개 단체가 꾸준히 펼쳐 온 인권영화제는 우리사회 진보와 인권의 문제, 권리보호, 평화, 노동, 언론문제 등 수많은 미상영 인권주제 영화를 상영해 온 바 있다.

올해는 충북옥천의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벌어지는 언론개혁 주민투쟁의 기록한 <옥천전투>를 비롯 캐나다에서 제작된 인권영화 <황제의 새옷>, 프랑스의 실직노동자들이 벌이는 고난의 행군 <행진>, 다큐멘터리 <버림받은사람들>, 재일동포의 삶의 그림 한국의 <입국금지>, 유고슬라비아 공영방송이 세르비아교회도인의 수용소 생활을 그림 <판단>, 미국에서 제작된 <레지스탕스>등의 화제작이 상영된다.

제7회 원주인권영화제-인권사회를 꿈꾸며

- 일 시 : 2002. 12. 10(화) - 12(목)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천주교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시지부, 기독교병원 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상지대학교, 한겨레21
- 상영작 : 먼지-사복을 묻다(한국), 호주제폐지-평등가족으로 가는길(한국), 친구(한국)
장애도 멀시도 없는 세상에서(한국), 두꺼비강의 눈물(한국)
주민등록증을 찢어라(한국), 9.11(미국), 콜롬비아 치욕의 전쟁(네덜란드)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가 지난 96년부터 인권의식의 신장과 교육을 목표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하고 있는 `인권영화제`가 올해도 계속된다. 해마다 12.10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추어 인권주간에 개최되는 제7회 원주인권영화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상지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리며 주제는 `인권사회를 꿈꾸며`로 상영작은 모두 8편(해외 2편 / 국내 6편)이다.

개막행사로는 정지영감독 초청강연회 “인권대통령을 꿈꾸며”가 개최된다.

올해 인권영화제 개막작은 이번 부산영화제 개막초대작으로, 2002인권영화상을 수상한 이미영감독의 <먼지, 사복을 묻다/ Dust dig or ask Sabuk>이다.

※ 【먼지 사복을 묻다】 이미영감독/2002년/80분/다큐멘터리

이 작품은 광주항쟁 한 달전인 1980년 4월21일 강원도 정선 사복탄광촌을 배경으로 어용노조에 맞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복사태 이후 20년간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의 세월을 찾아간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찢어라】 【장애도 멀시도 없는 세상】 【친구】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 【두꺼비강의 눈물】 【9.11】 【콜롬비아 치욕의 전쟁】 등이 상영된다.

원주시민센터는 14일 오후2시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2002청소년인권토론회도 개최한다.

제8회 원주인권영화제-반전 그리고 평화

- 일 시 : 2003. 12. 9(화) - 11일(목)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시지부, 참여자치 황성군민연대, 푸른영상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원주시지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운동사랑방, 상지대

- 상영작 : 선택(한국), 김종태의 꿈(한국),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한국)
여정(한국), 미친시간(한국), 파워 앤 테러(일본)

혼돈의 세상, '반전과 평화'를 생각한다 - 9일 원주인권영화제 개막

'전쟁반대' '평화실현' '이라크 파병' 등이 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지난 8년간 인권영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원주시민센터는 공무원노조 및 상지대학교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까지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제8회 원주인권영화제'를 갖는다.

영화제에서는 존 준커먼감독이 촘스키의 강연을 엮은 다큐멘터리 '파워 앤 테러', 베트남전쟁동안 한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현지 민간인들의 기억을 담은 '미친시간', 한국전쟁과 분단의 산물로 45년간 장기수로 버텨 온 김선명의 일생을 기록한 '선택'과 평화를 위해 집총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003년 한국) 등이 상영된다.

또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한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2002년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유니버스 영화 '여정'(2003년 한국)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작품 여섯편의 미공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독과 만남에는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의 김환태 감독이 참가 '평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제9회 원주인권영화제-양심의 자유와 인권

- 일 시 : 2004. 12. 8(수) - 10일(금)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 주 최 :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 후 원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 참여자치형성군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원주시지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다큐멘터리 '나무'
상지대학교, 푸른영상, 인권운동사랑방
- 상영작 : 프락치, 계속된다-이주노동자의 기록, 708호-이등병의 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원주지역고등학생 영상동아리 작품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원주인권영화제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개최된다. 원주인권영화제는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며 개최해 온 행사로 올해의 주제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으로 총 9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개막작은 8일 오후 7시 상지대학술정보원 6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룬 황철민 감독의 영화 <프락치>가 상영된다. <프락치>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상정안 처리를 앞두고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한시대의 양심의 자유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 병역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강모 이병의 이야기를 담은 <708호 이등병의 편지>는 벌써부터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그린 <계속된다>가 상영되며, 폐막작으로는 부산 국제영화제 운과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유가족을 통해 본 국가권력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해부한 이경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상영된다. 또한 올해에는 원주청소년들이 제작한 다큐 5편도 선보인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오미선 사무국장은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회 원주인권영화제

- 일 시 : 2005. 12. 10(토) - 14일(수)
- 장 소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6층
- 주 최 : 참여와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
- 후 원 : 상지대학교, 푸른영상,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상영작 : 안녕 사요나라,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학교이야기, 금붕어, 흡연모녀, 진실의 문
엄마, 슬로브햇의 딸들, 여성과 돈에 관한 이야기, 우리사이, 엄마를 찾아서
별별이야기, 원주지역고등학생 영상동아리 작품, 안티폭스(미국)

세계인권선언일 [世界人權宣言日]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

세계 인권 선언이란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초래한다.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다. 이에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 ①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 ①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 ①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 ①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②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 ①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②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 ③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 ①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 ①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 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③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 ①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 ①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 ①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②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③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 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 ①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 ③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목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은 험난했던 근현대사의 역사적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을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공공 특수법인체(행정자치부 등록)의 민간기구로서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민주발전 지원 및 기여 사업을 2002년부터 본격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사업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기념공원 조성
2. 사료수집 관리 :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료를 수집, 정리, 보존
3. 민주화운동 기념, 추모행사 주관
 - 추모사업 지원, 민주화운동 사료전시회, 유적지발굴 보존사업, 민주화운동역사 재정립
4. 학술연구사업
 - 연구총서 발간, 사전편찬, 번역발간, 학술심포지엄, 학술계간지 발간, 학술전문자료실 운영
5. 민주주의 교육
 - 민주주의 교육 연구 및 기획, 청소년 대상의 민주주의 교육,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네트워크의 조직, 민주주의 교육교재 개발

참여와 평화로 가는 원주시민연대

220-060 원주시 원동 180-2 시민연대 2F

TEL_033-766-1364 033-766-1366 FAX_033-766-1367

Homepage www.wjngo.or.kr E-Mail wjngo@hanmail.net
